

## “6·25 한국 전쟁 70주년...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을 것”

6·25 70주년 남가주 범교민 행사 온라인 개최  
통일 비전 품고 전 세계에 복음 심는 민족 되자  
공산주의 경각심 늦추면 비극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북한 2천5백만 주민들의 자유 위해 힘써야

6.25 한국 전쟁 70주년 상기에배 및 기념 대회가 26일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남가주 기독교 단체 대표들과 군 관련 단체가 연합해 진행된 대회는 6.25 한국 전쟁을 상기하면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순서 진행자와 일부 참석자만 현장 대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 1부 예배는 박세헌 목사의 사회로 권영신 장로의 대표기도, 황해경 집사의 특송에 이어 민종기 목사가 ‘예루살렘을 주시다(삼하 5: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최학량 목사(이승만기념사업회 LA지회)가 축도했다. 민종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도 동방의 예루살렘이 불리는 곳이 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과 회개 운동, 하나님의 은사의 근원이 되었던 곳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의 예루살렘을 주실 줄 믿는다”며 “무기보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 우상의 땅이 된 그곳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며 “이제는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드러내며 북한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을 심는 민



남가주 범교민 6.25 한국전쟁 70주년 상기에배 및 기념대회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는 주요 참석자들 ©기독교일보

족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2부 기념대회에서는 강태광 목사(월드웨어 USA 대표, 예비역 육군 소령) 사회로 한기형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고문)의 개회선언,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의 개회기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기념사,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향한 감사 순서 등이 이어졌다. 한기홍 목사는 기념사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미 동맹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는 미국

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날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다. 한순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춘다면 6.26과 같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 미 기독교인 3분의2 이상, ‘현장예배 참석 우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 ©Fellowship Church

미국 기독교인의 약 3분의 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에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가는 것을 ‘꺼림칙(uncomfortable)’하게 여긴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올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3,504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교회 복귀’에 대한 안전감 지수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응답자 중 64%는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하거나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대니얼 콕스

(Daniel Cox)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예배 참석을 편안하게 느끼는 지에 대해 얼버무리거나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 행위로 복귀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 및 종교별로는 반응이 상당히 달랐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61%는 예배 참석에 대해 “매우 편안”하거나 “어느 정도 편안”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반면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는 26%만이 “매우 편안”하거나 “어느 정도 편안”하다고 답했다.

흑인 개신교인 중 42%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비기독교 주요 종교인(major non-Christian religion)’들이 응답한 숫자와 같다.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un-affiliated)’ 응답자 그룹에서는 66%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8%만이 “매우 편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최근까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주들이 정상화를 시작했고 많은 교

회들도 사회적 안전 거리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 예배 참석자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자 다시 폐쇄에 들어갔고, 다른 교회들도 현장 예배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장로교총회(PCUSA)의 서기 J. 허버트 넬슨 목사도 최근 재개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넬슨 목사는 이달 초,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예배는 중요하지만, 예배 복귀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시간을 가질 것”과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재학생들에 코로나19 연방정부 그랜트 지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에서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그랜트에 대한 신청 및 배포를 실시한다.

CARES Act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2020년 3월 12일 당시 대학부 및 대학원생이며, 학교 출석 학생 (100% 통신 학생은 안됨)으로 2019-2020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7년도 세금 보고가 필요하며 FSA 담당자와 6월 29일까지 상담 완료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GMU 재정 지원 디렉터인 제임스 구 교수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그랜트는 정식 학위 인정과 함께 정부 학자금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인 신학교에서 이러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CARES ACT는 그동안 주로 대학부에 해당하는 Pell 그랜트와 함께 소득이 많아서 Pell 그랜트가 적용이 안되었던 BA 학생들과 대학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GMU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생당 약 500달러가량의 정부 그랜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GMU는 현재 2020년 가을학



그레이스미션대학 제임스 구 교수

기 입학원서를 받고 있으며 대학 과정으로 신학학사(BA), 상담학 학사

(BACC) 학위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에는 기독교 상담학석사(MACC),기

독교 교육학석사(MACE),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석사(M.Div)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박사(D.Miss)학위와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8개의 학위과정은 모두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하는 학위과정으로 ABHE, TRACS, ATSS의 정회원 학교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 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 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GMU 웹사이트 <http://kor.gmu.edu/cares-act-on-line-disclosure>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전화 714 525-0088, 이메일 ADMISSIONS@gmu.edu

## [1면 "6·25 한국 전쟁 70주년...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을 것" 이어]



좌부터 참전용사인 김재열 장로와 송한섭 옹, 송한섭 옹의 딸인 그레이스 송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이 부친을 대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한 목사는 또 "전쟁의 폐허 속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신 이유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세계 선교를 이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희생을 기억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강태광 목사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끝난 후, 조국 대한민국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 부흥이 있었고, 전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며,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선교 대국이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사사기 3장과 같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문화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무서운 시대가 됐다"며 "남가주 교민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기

도를 모아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전쟁의 의미와 역사를 깨달아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우방국과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A 에릭 가세티 시장의 축하 메시지도 낭독됐다. 샘 신 목사가 대독 한 메시지에서 가세티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를 대표하여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하게 돼 기쁘다. 오늘까지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과 LA에 대단한 기여를 해왔다. 매년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한국전쟁 70주년을 기억하며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노력

해 달라"고 말했다.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피종진 목사(세계기도모임 대표)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얼룩진 6.25 동란을 잊을 수 없고, 그 날을 잊어서도 안된다. 우리 후손들이 그날의 아픔과 지금 누리는 자유에 대한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전 합참의장 예비역 육군 대장 이필섭 장로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워주신 참전용사 여러분과 가족, 후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당시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침략자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고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함은 물론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과의 우정도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전했다.

구국기도회로 진행된 3부는 샘 신 목사의 사회로 김희창 목사(남가주 예비역 기독교인회 회장),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 김창식 목사(전 반공포로/원로목사회 증경 회장)의 인도로 △고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만세 삼창 후 다니엘 김 장로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 스티브 김 대표 7만달러 쾌적 위탁가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정



스티브 김 샌드캐년 대표

샌드캐년 컨트리클럽의 스티브 김 대표가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인가정상담소에 7만 달러를 쾌척했다.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20명의 위탁가정 및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총 3개월에 걸쳐 주거 렌트비, 공과금, 식품 및 생활품 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살 길이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

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소장은 "스티브 김 대표는 한인가정상담소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기부의사를 밝혀 주셨다"며 "한국의 꿈희망미래재단 뿐만 아니라, 장학 및 인성 교육사업에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타적 가치를 오렌 신념으로 많은 한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자일랜을 1999년 프랑스 알 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IT업계의 성공신화를 이뤘으며, 오래 전부터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http://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辯護**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이론과 실무 겸비한 기독교 사회복지사 양성 할 것!”

##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 개설 신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사회복지학과(Bachelor of Arts in Social Work, BASW) 학사 과정을 개설하고 올 가을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전문 지식과 임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 △지역 사회 복지 선교를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기독교 정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전문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 교육 이외에도 성서와 신학교육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의 동기를 바로 세우게 된다.

또한 온라인과 온캠퍼스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가주를 비롯해 미주 전 지역과 선교지와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임상과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목회자 및 선교사, 사모, 전도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사역 장학금과 매칭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랜트를 통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눈에 띈다.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WWW.WMU.EDU 또는 전화 213-388-1000로 할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전임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며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글로벌 휴먼서비스 실천을 선도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하는 일문 일답.

**- 교회 내 사회복지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분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나 헌신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학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사회복지를 통해 성도와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사회와



월드미션대학교가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전임교수. 이 교수는 교회가 사회복지학을 통해 지역 사회로 눈을 돌려 영적, 물질 자원을 환원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일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 선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역 주민과 교회의 욕구에 맞춘 복지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더욱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 졸업 후 진로나 사역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을 찾아,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획, 개발, 제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빈곤선교, 빈곤인사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사회복지현장은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회복지사가 모금과 후원사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입해 보는 등 전문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

은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휴먼서비스 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고객이 여러 도움을 통해서 어렵고 척박한 삶을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역동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NGO,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 예를 들면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병원, 군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선교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사, 복지선교사, 복지 담당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에 관심이 있어서 석,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 자원봉사 활동가 등 다양

한 영역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원 자격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복지 학문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와 선교 사역 현장에서 있으시면서 좀 더 복지사역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업기간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 학사 프로그램은 4년 과정입니다. 학업은 온라인과 온캠퍼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ATSS로부터 100% 온라인 교육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은 있지만, 학업 이수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라도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하

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반교양, 성경 및 신학 과목,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12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공과목 못지않게 성서/신학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이념, 영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은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와 한국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전공과목들을 구성됐었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눈에 띄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라는 학문은 머리로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실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2학기에 걸쳐 진행이 되며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현장실습은 1:1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됩니까?**

“사회복지학과 학과 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BASW)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와 협약을 맺은 학회와 연구소를 통해서 기독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정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아대), 신정원목사(복음선언대 대표), 유관지목사(서명일교회), 김인신목사(KCC공동대표)

• 영영 책은 아예 번역자료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열 목사 책의 편저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입니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서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4

### “멕시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신학대학 방문기”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20년간 매년 교회의 단기선교팀을 구성해 1주간씩 다녀온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 같다. 단기선교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8회째 이어져 온 졸업식 때도 거의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연초에 개인 기도 시간을 내어 한 주간 기도시간을 그 교정에서 하고 올 정도로 그 선교지를 매우 좋아한다. 지난 주간에도 아내와 함께 멕시코 신학교를 찾았다. 선교 프로그램 없이 아내와 방문했다. 학교는 현지인 신학생이 약 80여 명 정도 재학 중인데 현재는 여름 방학 중으로 대부분 학생은 고향인 남부 치아파스 지역으로 돌아갔고, 몇몇 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아 낮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숙식을 하고 있었다. 그 신학교를 22년 전 개척하여 현재 멕시코 장로교단 전체에서 가장 성장한 신학교로 또한 남미에서도 몇 안 되는 개신교 신학대학으로 발전하기까지 헌신한 임원석 선교사/권영욱 선교사 내외분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15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며 동역해 오고 있는 한필용 선교사/하이다 선교사 내외분도 함께 맞아 주었다.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임 선교사님 사택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밤늦도록 대화의 꽃을 피웠다. 대화중 임 선교사는 22년 전 한국 포항노회 파송으로 불모지였던 그곳 멕시코변두리의 황량한 모래 벌판에 자리를 잡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며 귀한 간증을 하였다. 필자는 임 선교사의 개척 때에 맞추어 라스베이거스에서 처녀 목회를 시작했었다. 그때 멕시코 지역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 개척 신학대학의 비전을 갖고 선교 개척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교회 선교팀을 구성하여 찾아갔다. 그렇게 만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임 선교사는 매년 졸업식 때 졸업생들을 향한 메시지가 늘 한결같았다. “오직 예수”였다. 그들이 목회자로 가서 사역을 하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문제없다’고 말씀을 전했다. 그의 메시지는 참 강하고 분명했다. 그는 구제 선교란 개념을 위협하게 본다. 아니 위협하다는 것보다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염려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 후식 독자들은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빈곤 포르노 선교방식”을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빈

곤 포르노’를 쳐 보면 나온다. 1980년대 아프리카를 비롯한 소위 제3세계 선교가 붓물처럼 확산되던 때에 NGO 구제단체와 선교단체 등에서 TV와 인터넷 영상을 통해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며 구제 모금을 하는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았다. 그때부터 그런 단체들은 모금을 하기 위해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한, 험벗은 빈곤한 아이들을 화면과 영상에 담아 거름없이 내 보냈다. 심지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의 원조를 위해 그곳 아이들을 강제로 더 처참하게 연출시켜 모금을 행했다. 그렇게 모금한 어느 단체의 리더는 일 년에 1억 이상을 연봉으로 가져갔다. 관공비와 여행 비용은 별도로 무한대였다. 그렇게 빈곤 아이들을 출연시키며 잘못된 선교행태를 보인 단체들이 많았다. 그들의 그런 선교방식을 그당시에 비난하면서 불었던 용어가 “빈곤 포르노”였다. 임 선교사는 지난 22년간 오직 예수만을 외치고 가르친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물질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선교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래서 그 길만을 전하였다. 역시 그가 가르친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약 30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고 그중 160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현지 교회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 충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다. 60여 명 정도는 교회의 사역자로 대부분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참 좋은 열매를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많이 맺었다. 멕시코 장로교단은 물론 남미 전체 개신교 신학교들에게도 큰 롤 모델이 되어 학교가 발전하고 있음에 참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현지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아내와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분들을 생각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행복 만들기 (15) 격려

## 격려의 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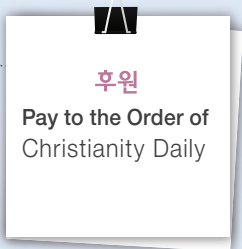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어느 대학에 천재적인 문학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학비평클럽’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서로의 작품을 비평했습니다. 비평을 통해 상대방의 문학적 재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또 다른 문학클럽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문학도론클럽’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했습니다. 이 클럽에서는 모든 문학 활동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그 대학의 교무과에서 학생들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학비평클럽’의 천재들은 단 한 사람도 이렇다 할 성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했던 ‘문학도론클럽’에 속해 있던 문학도들 중에는 여섯 명의 뛰어난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으로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격려는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줍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늘 남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고 합니다. 포드가 이렇게 격려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명가이며 제작자였던 포드는 젊은 시절에 격려의 힘을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에 지쳐있던 젊은 발명가 포드는 어느 저녁식사 모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발명하려는 엔진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그 식사 모임에 에디슨이 참석했었는데 몇 좌석 건너에 있던 에디슨이 포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다가 일부러 자리를 옮겨와 포드에게 그림을 그려 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고 포드의 설명이 끝나자 에디슨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것은 걸작이야. 자네는 이것을 벌써 해낸 거나 마찬가지야!” 수년 후, 포드는 “당시 에디슨이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 나는

은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코미디언 ‘밤 호프’가 월남전 참전 용사 위문공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케줄 중복으로 몇 번씩 사양했지만 너무 중요한 모임이라 얼굴이라도 잠깐 비치는 5분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연장에서 30분 이상을 공연하였습니다.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대 맨 앞에 있었던 두 상이용사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 때문이지요?’하더군요. 앞에 있는 두 상이용사는 팔을 하나씩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서로 한 손을 들고 박수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 호프는 “오늘 저는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종종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말을 듣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유래가 있습니다. 키프로스(Cyprus)에 피그말리온(Pygmalion)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조각을 매우 잘해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빚어 ‘지상의 헤파이스토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왕은 당시 키프로스 여인들을 불신하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사회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여인들은 결혼 연령이 되면

해안으로 나가 나그네를 만나 몸을 팔아 화대로 지참금이나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런 여인들의 행동을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로 보고 실망을 하고 그런 여자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피그말리온은 상아로 여자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조각상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틈만 나면 정신을 놓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고 때론 입맞춤도 하고 웃도 만들어 입혀보기도 하고, 그녀를 자기의 아내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피그말리온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의 조각상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게 입맞춤을 하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늘 조각상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보니 혈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입을 맞추자 조각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제야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파포스(Paphos)입니다. 물론 신화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힘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격려의 영향력, 격려의 힘은 대단합니다. 격려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두 달은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격려는 근사한 칭찬입니다. 격려가 행복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을 격려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격려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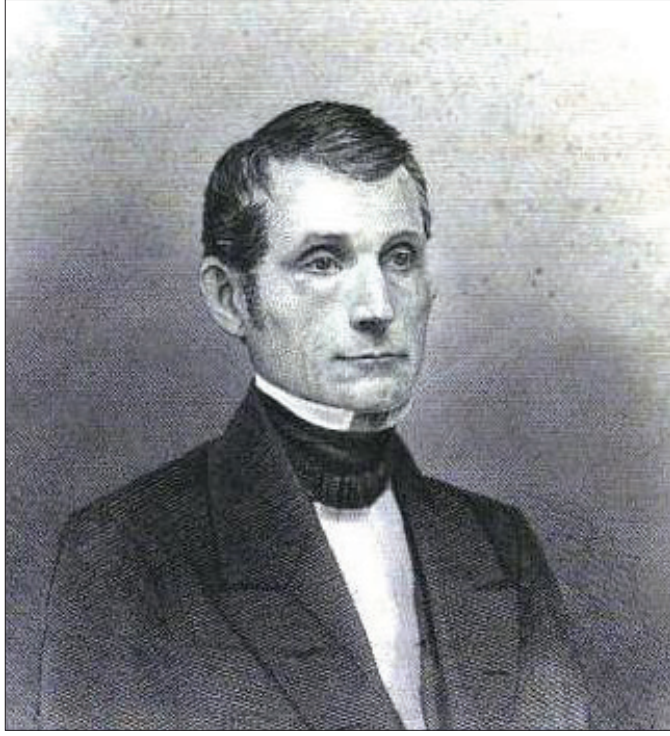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 (9) 예레미아 란피어와 평신도 정오기도운동

1857년 무렵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노예문제로 국가는 남북으로 분열될 위기였고 갑작스런 경제공황으로 나라가 휘청했다. 이 때 뉴욕 맨하탄 풀턴 거리에서 예레미아 란피어를 중심으로 평신도중심 정오기도운동이 일어난다. 1857-1859년 2년 동안 일어났던 이 기도운동으로 100만 명(어떤 기록에는 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국가는 남북전쟁 후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된다.

이 기도부흥운동은 미국 전역뿐 아니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 남아프리카 부흥운동으로 번졌고, 50년 이상 지속되어 무디 부흥운동, 학생자원선교운동으로 이어지고 세계적 부흥운동으로 연결된다. 한 사람의 마음에 붙은 기도의 불길의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했다. 이런 기도부흥이 다시 이 나라에 불붙기를 사모하며 평신도 정오기도모임을 소개한다.

#### 당시 미국의 위기상황

정치적으로는 노예문제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한 교회 안에서도 노예문제로 두 파로 나뉘었다. 경제적으로는 북서부의 엄청난 농산물 수확과 철도를 통한 운송,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으로 인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1857년 갑자기 극심한 경제공황을 만나 수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파산하고 증권은 폭락했으며 맨하탄에서만 실업자들이 3만 명이 생겨 그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신앙적으로도 윌리엄 밀러의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해 그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이나 불발하자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흥

을 달라고 기도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1856년 12월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장로교 총회는 부흥을 주제로 모였고 총회에 참석했던 200여명의 목사들이 1월 첫 주에 부흥을 주제로 설교하기도 했다.

#### 기도회를 점화시킨 예레미아 란피어

이 때에 기도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맨하탄에 소재한 화랑개혁교회의 평신도선교사인 예레미아 란피어였다. 그는 기도모임을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수 많은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정오기도회를 착안한다. 이를 위해 그는 1857년 9월 23일 부터 수요일 정오에 풀턴 Street에 있는 화랑개혁교회 3층에서 사업가들을 위한 정오기도회를 시작한다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기도로 준비한다.

9월23일 정오에 예고한 장소에 갔으나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오지 않아 혼자 기도하다가 35분이 지난 후에 6명이 참석해 함께 첫 기도회를 가졌다. 다음 주에 14명, 그다음 주에 23명, 그다음 주에 100여명으로 불어나고 기도의 열기도 뜨거워지자 매일 정오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한다. 이 기도회는 다른 도시들로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1858년 봄에는 뉴욕주에만 매일 5만 명 이상이 모였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들 즉 예배당, 극장, 소방서, YMCA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1857년 11월에는 필라델피아로 번져갔는데, 11월 23일 몇 명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마음에 부흥의 부담감을 안고 매일 조그만 살롱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점점 불어났고 1858년 3월10일에는 2500명이 모여 기도했다. 장소를 넓히자 곧 6000명의 기도인파가 모이게 되었고, 3월 말에는 교회들이 문을 열어 매일 3-5차례씩 기도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물려오는 기도 인파

를 위해 당시 2000불을 주고 큰 천막을 구입해 1858년 5월부터 대형 천막에서도 모였는데 5월 부터 4개월간 연인원 15만 명이나 참석했고 약 1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도회는 뉴저지, 알라바마,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올리언즈,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네티 등 수 많은 도시들로 번져갔고 대학들로 번져갔으며 선박들에게까지 번져가 선박기도회가 열렸고 선박 안에서도 수백 명씩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 기간에 여러 도시들에서 수개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매일 3-5차례 기도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12시 5분 전에 기도회에 가도록 벨을 울려주었다. 많은 상점 문에는 "기도회가 끝난 다음 영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1857년에 시작한 기도부흥은 1959년 까지 계속되었는데 대도시는 물론 군소도시와 시골까지 널리 확산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150개 지역, 뉴욕 200개 지역, 뉴저지 60개 지역, 펜실바니아 65개 지역, 오하이오 200개 지역, 인디애나 150개 지역, 일리노이 150개 지역, 미주리 50개 지역, 아이오와 60개 지역 등 동부의 모든 지역에 정오 또는 저녁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동부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은혜가 넘쳤다고 증언하고 있다.

#### 평신도 정오기도운동의 특징

1, 특별한 부흥사의 설교가 없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자유로운 기도운동이었다. 간단한 찬양으로 시작해 개회기도를 드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요청, 권면, 기도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기도요청에 따라 기도하되 각 개인의 코멘트나 기도가 5분을 넘지 않게 했다. 기도회가 정확히 1시에 마치도록 1시5분 전에 찬송을 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통회의 눈물이 그들의 불에 흘러내렸으며 그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용사가 각 심령에 찾아왔다.

2,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와 비기독교인들이 참석했는데 이 기도회는 곧 전국과 유럽, 남아프리카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 평신도 정오기도회의 영향력과 결과들

1, 당시 미국의 인구가 3천만이던 시절에 2년간 100만-200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이루어 졌다. 부흥운동의 절정기에는 매주 5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어떤 마을은 전원 구원 받은 마을도 있었다.

2, 대부분의 대학들과 학교들도 이 기간 동안 부흥을 체험했는데 예일대학과 프린스턴대학은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회심했고 많은 학생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기도회가 열렸던 오하이오의 어느 고등학교는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한다.

3,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강한 미합중국으로 하나로 다시 연합되었다(부흥운동이 없었다면 전쟁 후에 결코 다시 하나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이 기간 동안 영적, 도덕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웨슬리 듀웰은 "미국은 신앙과 기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표현했다.

5, 이 기도운동 이후에 5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었다.

6, 이 부흥운동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과 유럽 부흥운동으로 번져갔고, 무디의 부흥운

동, 학생자원선교운동으로 부흥이 연결되었다.

특별한 부흥사의 인도도 없이 한 평신도를 중심으로 맨하탄에서 성령의 인도하에 시작되었던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을 기도의 불길로 뜨겁게 달구었다. 이 기도회로 인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도덕성이 새로워졌으며,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었다. 이 기도의 불길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아프리카 등의 수많은 개신교국가들로 부흥의 불길을 점화시켰다. 주님,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은혜가 절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운동의 불길이 이곳 미국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나 하나님을 떠난 미국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도덕성이 회복되어 국제적 존경심을 회복함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운동을 우리 한인들이 점화시키게 하소서. 이 불길이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뜨겁게 달구게 하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N),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인,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PCUSA,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칸 원주민 총회장 선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동사 총회장(co-moderator)으로 선출됐다.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0일 열린 PCUSA 제224차 총회에서 델라웨어 난티코크 부족의 일원인 엘로나 스트리트-스튜어트(Elona Street-Stewart) 장로가 동사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스트리트-스튜어트 장로와 함께 출마한 엘라베마 헨츠빌에 소재한 펠로우십 장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레고리 벤틀리(Gregory Bentley) 목사는 304표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스트리트-스튜어트 장로는 장로교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은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하다"면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선거에 출마한 마리 메이나드 오코넬(Marie Mainard O'Connell) 목사와 아서 플러튼(Arthur Fullerton) 후보는 90표를 득표했고



PCUSA 제224차 총회에서 엘로나 스트리트-스튜어트(Elona Street-Stewart) 장로(우)가 아메리칸 원주민으로는 최초로 동사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PCUSA

산드라 헤드릭(Sandra Hedrick) 목사와 문 리(Moon Lee) 후보는 65표를 득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출신인 스트리트-스튜어트 장로는 지난 1982년 오레곤 주 퍼스트 장로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바

있으며 미네소타 주 노회 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날 PCUSA 총회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동사 총회장 선출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로 열렸다.

총회 사무국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온라인 총회에 대해 투표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총회 사무국 운영 담당인 줄리아 헨더슨은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불티모어 컨벤션 센터와 호텔들과의 계약 문제로 인해 투표가 진행됐다"면서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그

들이 의무를 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총회 사무국은 "매릴랜드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컨벤션 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 현장 병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총회로 전환되면서 총회 일정은 총회장 및 서기 선출, 예산, 특별위원회 관련 조치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 계획으로 축소됐다.

한편, 이번 제224차 총회에서는 총기 폭력 예방 캠페인 관련 연구를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중 한 명인 장로교 평화 펠로우십 총기 폭력 방지부의 코디네이터인 디나 할라스(Deanna Hollas)는 "총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총기 판매 증가한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면서 "기독교 인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공동체를 구축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경 기자

# 미국인 10명 중 6명,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지 않아"

미국인들 10명 중 6명은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신성(sacred)'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3명 중 2명 이상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good)'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CRC)는 미국인들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중시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20일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부터 미국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왔다. 응답자 중 39%만이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데 동의했다. '신성'이란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이 질문에는 특히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이 더욱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복음주의적이며 거듭난 기독교인(evangelical and born-again)' 그룹은 60%가 생명이 신성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오순절 교인 중 46%, 주류 개신교인은 45%, 로마 가톨릭은 43% 순으로 동의했다.

한편 미국인의 12%는 인간이 "물질적 실체(material substance)"이

며 '생물학적 기계(biological machines)'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12%는 인간은 '우주의 정신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생명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응답자의 69%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자들은 인간을 단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시각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성서적 근본 가르침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바르나 그룹의 설립자이며 CRC 리서치 국장인 조지 바르나는 성명을 통해 "인류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시각이 범 집행과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오늘날의 논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와 폭력 등이 가난, 나쁜 양육방식, 구조적 차별, 그리고 다른 외부적 힘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범죄 통거나 정치적 긴장, 분노와 증오를 향한 경향성, 그리고 미국의 도덕적 퇴화와 혼란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선하



©Pxabay

지 않으며, 경험적 난제들(empirical challenges)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바르나는 또 "인종 차별을 불법화"하거나 "법을 통과시키고 지키도록 강요함으로써는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며 "그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어떤 변화도 단명(short-lived)하거나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CRC 보고서는 '미국인 세계관 인벤토리 2020'의 올해 7번째 보고서이다. 첫번째 보고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51개의 세계관에 대해 질문했으며 사람들이 무엇을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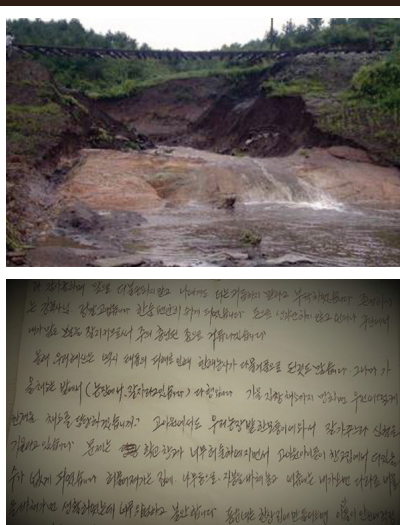
고 어떻게 사는 사지에 대해 연구했다.

'성경적 세계관을 옹호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6%에 불과했으며, 복음주의적이며 거듭난 개신교인 중에서는 20%, 오순절 교인의 16%, 주류 개신교인의 8%, 로마 가톨릭 교인의 1% 순으로 응답했다.

김진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복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美 펜스 부통령 “미국의 기초는 자유, 자유의 기초는 신앙”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8일 델러스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 '자유기념주일' 행사 특별강사로 참석했다. ©델러스 제일침례교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델러스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 연례행사인 '자유기념주일'(Celebrate Freedom Sunday)에 특별강사로 참석해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적인 시대에 자유와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가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과 가정은 관료주의와 정부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미국의 모토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는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모든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국가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자유와 믿음을 굳게 붙들자. 미국을 위해 다시 기도하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들의 부통령이라는 사실”이라고 재차 신앙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벤 카슨 미 주

택도시개발부 장관은 강연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동료들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삶을 지배하는 가치와 원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를 지키면 위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일침례교회 담임이자 트럼프 대통령 복음주의 자문위원인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는 펜스 부통령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친생명적이고 친종교 자유적이며 친이스라엘적이고 친보수적인 법관을 임명했다”면서 “펜스 부통령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 때문에 조롱당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미국과 전 세계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종교인의 수명, 비종교인보다 4년 더 길어”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평균적으로 4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뉴스위크(Newswee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은 미 전역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 사건을 연구한 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팀은 또 결혼 여부와 성별 역시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로라 윌리스(Laura Wallace)는 성명을 통해 “성(性)과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장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윌리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종교적 신념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12년 1월과 2월 사이 아이오와주 현지 매체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에 올라온 500건 이상의 부고를 분석했다.

부고의 내용 중 고인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사회적 지위, 봉사 활동, 종교 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고에 종교가 표시된 사망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45년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결혼 여부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6.48년으로 떨어졌다.

두번째 연구는 2010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 42개 주요 도시의 신문 웹사이트에 게재된 부고 1,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부고에 종교가 표시된 사망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64년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결혼 여부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3.82년으로 떨어졌다.

뉴스위크는 “연구팀은 자원 봉사와 사회 활동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에 그들의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해, 이것이 장수의 급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냈다. 사회심리 및 인성과학 저

널에 게재된 이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자원 봉사나 사회 활동이 모두 장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스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생활 태도를 비롯해 기도나 명상 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운동 등도 장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설명할 수 없는 신앙과 연관된 유익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와 수명의 관계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평균 신앙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윌리스는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부 특정 상황에서 비종교인들에게도 미친다”면서 “이러한 효과는 모든 이들이 같은 규범을 따르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종교적인 도시에서 발생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만큼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장수의 중요한 요소인 인종과 생활습관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종교가 장수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지난 2016년 미국 내 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역시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하버드 T.H. 찬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중년 간호사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4년마다 종교예배 참석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최소 1회 이상 교회를 찾은 이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33% 낮아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 2세대를 섬기며, 이만 1천여 명이 모여,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밀라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쪽해변 주차)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미예배(소매백)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자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뢰의나기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장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톨릭)미사(미사) 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 목회자 출신 말라위 신임 대통령, 재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꺾고 당선



BC에 따르면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밤 차체라가 58.57%의 득표율로 제6대 말라위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차체라는 앞으로 5년 동안 말라위를 이끌게 된다. ©Twitter/LAZARUSCHAKWERA

“내가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된 기본이다. 죽음에서 일어나온 것 같다.”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에서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야당 말라위 의회당의 라자루스 차체라(65)가 당선됐다. 28일 BBC에 따르면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밤 차체라가 58.57%의 득표율로 제6대 말라위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차체라는 앞으로 5년 동안 말라위를 이끌게 된다.

살아난 나사로의 심정”이라며 매우 긴 여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차체라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말라위, 남아공, 미국 등에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현재 말라위 의회당(MCP)은 물론 아홉 정당 연합인 틴세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개혁 가운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법원이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실시한 재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아프리카 첫 대통령이다.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는 前 피터 무타리카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투표용지를 고치는 등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말라위에선 수개월 간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법원은 만장일치로 대선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차가 신임 대통령에 취임식에서 “내가 이긴 것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끓어오른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피터 무타리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아마도 내가 대통령이 돼 여러분은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찰 수 있지만, 새 말라위는 여러분에게도 조국”이라며 “내가 대통령인 한 여러분도 이 조국에서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순절교단 목회자 출신인 차체라 신임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은 나라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섬기는 것”이라며 “공공행정 등 부정부패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따르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자리한 내륙 국가로 옛 이름은 니아살랜드(Nyasaland)다. 북쪽은 탄자니아, 동쪽과 남쪽은 모잠비크, 서쪽은 짐바와와 접해 있다. 한반도 면적의 절반에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다. 기독교가 80%, 이슬람교가 18%를 차지한다.

그는 재선거 승리에 대해선 “죽음에서 김근혜 기자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움 MP제움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회 목회 7:30 주일 성경공부 목회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81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935-5887 Tel. (310) 937-58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담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홍콩 보안법 승인 되면 기독교인 체포 우려”



작년 6월 홍콩 도심을 행진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들의 모습. ©Channel 4 News 보도 화면 캡처

중국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한 홍콩 성직자들에게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에콰 타임즈를 인용해 중국의 최고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고 홍콩 보안법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위배된다”고 영국에 기반한 감시단체 ‘홍콩 워치’(Hong Kong Watch)가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시 홍콩과의 특별한 협정과 합의를 철회하고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기독교연대(ICC)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인민대회당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된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ICC는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조셉 쟈 추기경과 조셉 하 치싱(Joseph Ha Chi-shing) 보좌주교와 같은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한 홍콩 성직자들을 중국에 위협이라고 판단, 본토로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는다. 또 홍콩의 국가 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 지도, 협조, 지지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범죄를 보안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홍콩 학교에서 국가 안보에 관한 교육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보안법과 홍콩의 기본법이 불일치할 경우 보안법이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항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수백명의 개신교 지도자나 기독교 단체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자유를 허용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중국은 동의했다. 하지만 보안법은 이 협약에서 약속된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미경 기자



# 코로나19 '집단 확진'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 드린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왕성교회 사과문

먼저 교회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5일(목)에 본 교회 소속 청년부 1명이 안타깝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 오후 12시까지 최초 확진자 포함 총 23명의 청년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인분들을 포함하여 국민들께 심려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회는 확진자 판정 결과를 듣고 방역당국과 관악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부와 젊은이예배 참석자들 뿐 아니라 21일 1, 2, 3부예배에 참석한 전체 장년들 역시

왕성교회가 게재한 사과문 ©기독교일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왕성교회의 길요나 담임목사가 27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길 목사는 "먼저 교회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지난 25일에 본 교회 소속 청년부 1명이 안타깝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현재 오후 12시까지 최초 확진자 포함 총 23명의 청년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인분들을 포함하여 국민들께 심려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본 교회는 확진자 판정 결과를 듣고 방역당국과 관악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청년부와 젊은이예배 참석자들 뿐 아니라 21일 1,2,3부 예배에 참석한 전체 장년들 역시 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위기관리대응팀을 구성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부 젊은이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선별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23명(전원 청년들)"이라며 "그 외에는 27일 오후 12시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왕성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에

로 이행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문자 리스트 작성, 건물 방역 등을 철저히 해왔다"며 "또한 예배 시에도 성가대 활동과 오케스트라, 각종 소모임 사역을 중단하고 심방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역을 진행해 왔다. 다만 예배의 특성상 최소한의 찬양팀을 운영하여 진행해 왔다"고 했다.

길 목사는 "그러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왕성교회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먼저는 방역 횡수를 기존 주 3회에서 더 늘리도록 하겠다. 둘째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신속 정확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특성상 활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더욱 계도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나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다"며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교회는 계속 최선을 다해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코로나 이후 반드시 변해야 할 8가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모습. ©지구촌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6월 18일 분당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목회적 대응과 실제적 대안 수립을 위해, 6.25 전쟁 70주년 침례교 통일선교주간을 맞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성은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3.8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어느 시대보다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종말론적 상황, 포스트모던 시대, 자아중심적 세대, 권위 해체, 절대적 진리 상실 시대, 그리고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생활'을 정상(New Normal)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은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찾아왔고, 인류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물론 있다"며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정말 우리 시대가 최고 힘들까?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교회는 2천년간 초창기 로마 제국과 이슬람권, 근세에 공산권에서 수많은 희생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서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역설했다.

최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결코 복음의 능력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시대의 도전과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토

대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3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하라(1-2절)'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 것만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3-4절)'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고난을 경험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성령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로 나타난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기도 사역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라(5절)'이다. 이에 대해 "나 같은 연약한 짐꾼에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망각할 때 교회는 망가지고 아픔을 겪는다"며 "우리에게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승리를 주는데, 이는 하나님만 실질 수 있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코로나 이후에는 본질을 따랐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영적 실패를 경험한 것인가"라며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이 규정하신다. 갖은 애를 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본질을 붙들고 목회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대웅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때(영양, 노래)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6:0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때(영양, 노래)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토)/6:00(토)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요 삼려 삼려 해공됨! 세상의 소리를 막고 주의 말씀만 듣자!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p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의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9: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종교개혁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찬양예배 오전 11:30, 한야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새 변화를 위해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지혜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험은 위험하지만 큰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험에 도전합니다. 모험이 큰 보상을 약속하는 것만큼 모험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모험(冒險)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모험해야 합니다.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창 12:4). 만약에 변화를 거부한다면 변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변화 속에는 새로운 만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12:1).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만남을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정리해야 할 익숙한 만남은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우상을 떠났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변화를 거부한다면 변화 속에 담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엄청난 복을 약속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이었습니다(창 12:3하). 축복은 사명입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누리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많이 받아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나누어 줄 때 복은 더욱 풍성해 집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상).

새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란 집착한 것의 노예가 됩니다. 집착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구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 바구니의 입구는 원숭이가 손을 넣을 정도로 작게 만듭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빼려는 순간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에 잡은 바나나가 커서 바구니 밖

으로 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붙잡은 바나나를 놓아줄 때 그는 자유케 됩니다. 반면에 손에 붙잡은 바나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원숭이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놓아주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변화는 놓아줌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놓아줌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놓아줌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몸에 있는 뱃줄을 끊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몸에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자녀는 새로운 성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계속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전거를 붙잡았던 손을 놓을 때 자녀는 스스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와 축복은 옛것을 놓아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놓아 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는 것만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놓아 주십시오. 이미 떠나간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를 놓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고후 5:17). 놓아줌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놓아주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놓아주고, 수치심을 놓아주고, 우리 과거를 놓아주는 곳입니다.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놓아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미국 독립기념일은 축제의 날

이번 주 토요일(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화려한 퍼레이드와 요란한 불꽃놀이 그리고 바베큐 파티 등으로 독립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외적인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제의 독립기념일이 되기까지 리더들의 엄청난 믿음의 용기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소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에서 많은 이들이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보스턴 근교의 풀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식민지를 확장해가던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이 신대륙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고, 플로리다 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점령당한 반면, 미 동부 지역은 영국의 힘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비용으로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사탕조레, 차조레 등 갖은 세제를 제정,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패트릭 헨리는 1775년 리치몬드 시민대회에서 영국정부에 대해 ‘자유가 아니면 주검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는 연설로 기염을 토했고, 토머스 페인은 ‘상식(Common Sense)’이란 책을 통해 미국 독립의 당위성을 써서 호평을 받으며 출간 3개월 만에 무려 10만부가 팔리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영국은 식민지인에게 내국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대표 없는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유명한 논리로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1775년 2차 대륙회의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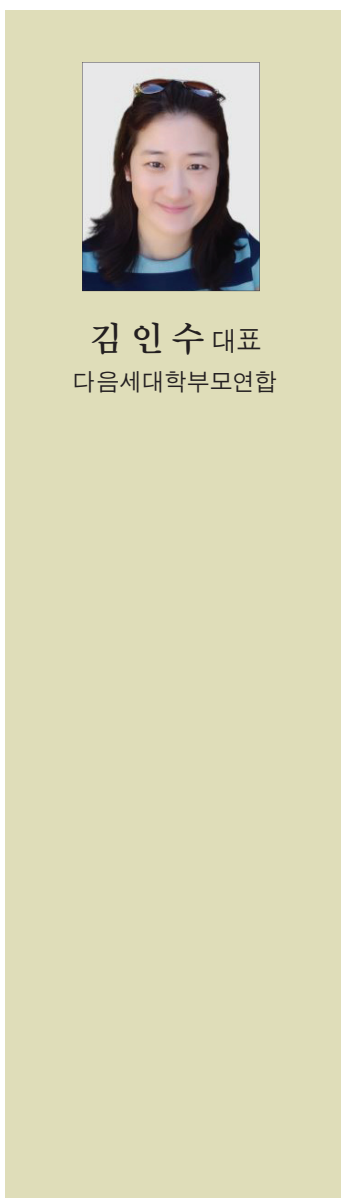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에 영국 황실 군대가 메사추세츠주를 침공하므로 이때부터 1783년 9월3일까지 8년에 걸친 독립전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한 13개 식민지 대표는 1776년 5월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인 독립선언 준비에 착수했고, 두 달 후인 7월 4일 독립선언문 완성과 함께 결정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13개 식민지 중 9개 식민지의 찬성을 획득, 독립 선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기초자들은 당연히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Creator)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명시할 만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 두 명이 연단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치며,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로 끝을 맺습니다. 미국 국회의 상원과 하원에는 공식적으로 의회목사 제도가 있어서 기도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셔서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거룩한 희생을 통해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 낙태 세계 1위, 하루 3천건 이상



김인수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2020년 12월 31일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폐지된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2021년 1월1일부터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낙태가 시작될 것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3000건 이상 전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낙태죄가 있는 데도 이 정도면 내년부터는 얼마나 많이 증가할까. 실제로 영국은 낙태죄 폐지 후 낙태율이 1000% 늘어났다

**한국의 낙태 하루 3000건 이상, 세계 1위**

문제는 이런 실상을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명을 중요시 하는 것에 동의하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한 것은 외치지 않았을 뿐이다. 뉴스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내놓는 통계는 법을 통과 하려는 세력들의 거짓이다. 그 거짓에 진실은 말하는 것조차 무력화시키고 빠른 속도로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임신한 학생들의 학습권에 차별을 두지말자고 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다.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나쁜 짓은 멈춰져야 한다.

1973년 미국은 낙태 합법 국가가 되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었는지 알고 있느냐’는 한 목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죽을 때까지 낙태 반대운동을 하였다.

미국가족계획연맹의 한 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교육받은 대로 낙태 상담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낙태시술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09년 그녀는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에서 섰으며, 그 대가로 많은 협박을 받았다. 2019년 미국은 현재 11개주가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에 사인했다. 모두 한 사

람의 힘이다. **미국 낙태 상담자, 낙태 실상 목도 이후 낙태반대운동 선포**

우리나라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미국을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한다며 빠른 속도로 따라 가고 있다. 미국이 50년 전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법을 왜 우리나라는 만들려고 하는가. 많은 댓가를 치르고 50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가.

새로운 법이 세워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친다. 국회의원 10명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걸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올해 몇 달 안남은 이 때에 우리는 생명 존중, 태아 존중의 법이 만들어지길 국회에 촉구한다.

성경에 많은 죄들이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돌 판에 써주신 이것만은 어기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한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는데도 일어나 외치는 교

회가 없는가.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세워져서 문을 열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살길 이요 우리자녀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여호와 편인지 바알편인지 오늘 택하라고 하셨다.

**십계명을 어기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한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차별금지법 통과로 교회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않길 소망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7월 2일  
 금미리교회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영구수리면 안해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코로나19... '온라인 교회, 네트워크 교회 시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 [최덕성 칼럼] 옛날로 돌아가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 1. 온라인 교회의 등장

온라인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 교회는 유비쿼터스(Ubiouitous) 기술과 세계적인 대전염병이 가져온 새로운 일상(new normal)의 만남이 만들어낸 신앙고백 공동체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사회소통망(SNS)을 수단으로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현대 정보통신기술(IT)은 새로운 방식으로 영적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의 등장을 예견이라도 한 듯 비대면 또는 간접대면 방식의 예배, 세례, 성찬, 교육, 상담 등을 대중적 원격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소통의 길을 열었다.

감염병 권위자들, 과학자들은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권준욱 박사는 2020년 4월 13일 일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반 년 동안 세계의 감염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감염이 증가되고 감염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잠시 봉쇄했다가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한 나라들인 미국, 브라질, 인도 등은 바이러스 재 확산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양태는 과학자들의 판단이 정확함을 뒷받침한다.

며칠 전의 바이러스 변이 소식은 우리를 더욱 침울하게 만든다. 미국 어느 연구팀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가 인간의 세포를 10배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변이 되었다고 알렸다.

작은 침방울을 거쳐 전파되는 코로나19와 전이된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밀집 모임을 하지 않는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다.

작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호흡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형태의 예배 모임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대역병이 가져온 인간 삶의 혁명적 전환(paradigm shift)은 기독교가 오순절 날에 출범하여 2019년까지 약 2,000년 동안 유지해 온 예배 방식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대안은 플랫폼 교회, 온라인 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의교회 성도들

배-성례-세례-목회이다. 예배당 중심의 집단 예배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온라인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목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

### 2. 뉴 노멀 시대의 교회

뉴 노멀 시대는 목회자에게 창조성, 상상력, 역동성, 유연성 발휘를 요구한다. 유비쿼터스 방식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기술(IT)은 소셜미디어 포럼, 가상 회합, 비대면 팀 미팅이 가능하게 한다. 간접 대면 형태의 '교회' 형성과 대중적 소통성을 가진 플랫폼 구축을 재촉한다.

온라인 교회는 교회당, 건물, 장소에 기반을 두지 않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신앙고백 공동체이다.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진지한 콘텐츠를 동시 방송 또는 영상으로 송출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수신 가능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를 한다.

온라인 교회는 유비쿼터스 방식의 예배와 성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개인 공간에서 홀로 있거나 소수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영적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먼 거리에 있는 신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기회를 제공한다.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채플의 예배를 동시 중계하거나 녹화영상으로 제작 방출한다. 신도들은 온라인 교회의 예배 실황을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질과 방법을 구분한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며, 다만 접근 방법이 세

로울 뿐이다.

### 3. 온라인 사도 시대

온라인 교회를 주도하는 온라인 사도들은 비대면 또는 간접 대면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간다. 예수께서 하늘 왕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온 성육신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스크 쓴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바울이 유비쿼터스 세상에 살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직면한다면, 교회를 인터카네이션(intercarnation) 공동체, 플랫폼 교회로 전환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계시의 메시지를, 네트워크라는 수단으로 전했을 것이다. 온라인 교회를 세워 그 통신망으로 복음과 복음의 감격, 기쁨, 장엄함을 전했으리라.

온라인 교회의 설교자와 청중은 상호 작용한다. 온라인 교회의 가치는 시청자의 반응으로 드러난다. 온라인 목회의 반응은 동영상 시청자 수, 채널 구독자 수, 현금자 수에서 드러난다.

온라인 교회는 현금 방식은 사회 봉사 목적의 현금, 선교 목적의 현금, 일반 현금, 그리고 스토리 펀딩이 가능하다.

대역병은 기독교가 비상(飛上)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복음전도와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 4. 온라인 교회론

온라인 교회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하고, 나태하게 할 수 있다. 전통적 방식의 전도와 선교를 위축시키고, 성례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코이노니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온라인 사도들은 이러한 단점들을 숙지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임시적 대안으로 수용하고 있다. 온라인 세례와 온라인 성찬은 현재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교회법으로도 보장된다.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예장 고신교회와 미국 기독교개혁 교회의 헌법은 세례와 성찬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신 헌법, 예배지침 5:3; CRC 헌법 55조).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또는 간접 대면으로 진행되는 세례와 성찬은 허용적이다. 인수를 받은 목사가 집행하면 된다.

새 시대는 새 상황에 부합하는 교회론 정립과 교회법 규정을 재촉한다. 온라인 신학, 온라인 교회론 정립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만남과 소통이 얼굴을 맞대고 살을 부대끼며 접촉하는 방식에서, 비대면 또는 거리를 둔 만남과 안전한 회집 형태로 전환하는 교회 개념 도입이 요청된다.

대역병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다. 코로나19의 창궐 상태도 조만간 끝나리라. 임시방편인 온라인 예배가 종식되고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 드리는 밀착 예배가 회복되리라.

그러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교회와 교회 관련 모임들에서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역병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는

가? 온라인 교회가 뉴 노멀 시대의 '노멀 교회'로 정착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고 대전염병이 물러가도 유비쿼터스 채널, 네트워크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 5. 원증회고(怨憎會苦) 시대의 신학자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 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요구한다(롬 12:2).

변화하는 시대의 영적 의미를 간파하고 위기를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 사회, 산업, 개인, 기업 등 모든 것을 빅데이터(Big Data)라는 하나의 서버(Server)에서 통합 관리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중앙 통제, 전체주의 통치가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면서, 온라인 교회는 새 환경에서 생존이나 살아남을 목적이 아니라, 새 시대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시대의 영적 투쟁 과정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

기독교가 나아갈 새 길을 열어 제시하고, 다가오는 거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은 우선적으로 신학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이다. 신학자의 임무가 막중하다.

중세 후기 타블파처럼 성경과 교회사에서 온라인 형태의 교회 모범을 찾을 수 없으며, 신앙고백서도 그러한 개념의 교회에 대한 힌트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원증회고(怨憎會苦: 미우면서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 싫은 환경에서도 함께 해야 하는 고통- 불교 용어) 시대, 뉴 노멀 시대를 맞이 하는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명언이다.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 VK마스크 시판

###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씨

# 사사 입다의 생애와 신앙교훈

사사기 11:1-1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뚝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 5 암몬 자손이...(중략)...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 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 1. 하나님께 주목받는 입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기생이 낳아준 사생아였고 서자였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성장한 후에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 위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뚝이라는 땅으로 갔으나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 생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사 11:3)했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직장도, 가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입다가 육의 형편을 따라 살았던 생활은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 불안, 근심을 끼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며 20-30년이 지났을 때 암몬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무기도 없어 전술전력이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던 입다를 떠올리고는 이 전쟁에 선봉장이 되어준다면 암몬자손을 문제 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다를 택하시고 쓰시기 위한 소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난 날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내어 쫓았던 일을 생각하며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왔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입다의 질문에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

가 반드시 행하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암몬자손이 쳐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입다로 하여금 믿음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바치는 인생

입다는 옛 고향인 미스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분명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왔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불러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 갖추기를 서둘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그 계획에 따라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고 합니다.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에돔 왕, 모압 왕,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으며 시혼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여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기까지 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나"(사 11:21-23)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리라"(사 11:24)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신앙인격 수준이 성숙하

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입다는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암몬자손의 왕은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했습니다. 입다는 전쟁할 준비도 안된 군대를 하나님의 뜻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암몬자손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나라의 상황이 급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수단으로 입다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임을 입다는 알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 3.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함

입다는 하나님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무남독녀가 춤을 추며 나와 영접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며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그 딸이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고 말하는 두 달 동안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돌아오게 해달

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4-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시나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고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의 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행하라고 아버지인 입다에게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입다의 신앙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며 요긴하게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약속한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가 되어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동양철학은 운명론을 많이 거론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運命: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입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과거가 불행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이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했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다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모든 조건에 합당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교일보	미국 신문 설교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설국열차> (下)

# 본회퍼와 <설국열차>: 신앙 공동체, 계급투쟁 극복의 장

넷플릭스 TV 시리즈로 방영중인 <설국열차>에 대해 분석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리메이크한 이 드라마는 제니퍼 코넬리, 다비드 디그스, 엘리스 라이트, 마이크 쉰너, 수잔 박 등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 ◆인류와 평등: 평등 사회를 향한 인류 자체적 가능성의 결여

프랑스의 그래픽 노블로부터 시작해 봉준호 감독의 실사판 영화를 거쳐 최근 리메이크된 TV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설국열차>는 종말 앞에 놓인 인류의 생존 본능과 통속적 사회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류 전체 인구가 멸종 직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파괴된 지구 생태가 언제 회복될지, 아니 회복될 수는 있을지 불투명한, 반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류가 구성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비극적인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국열차>에 펼쳐진 인류 마지막의 사회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권력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줄어들어 가는 자원과 희박해져 가는 생존 기회를 앞에 두고 열차 구성원 전체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 한 마디로 파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TV 시리즈 <설국열차>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정의와 인권 존중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열차 내 최하층 계급인 꼬리칸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저열한 억압을 무너뜨릴 의지를 갖는다는 계급혁명적 사고가 작품 안에 여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설국열차>는 다분히 계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 인류의 종말이 닥쳐오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집단적 선의지와 공동체적 혁명 실천으로 생존과 번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의 자력구제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이 작품의 서사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처럼 TV 시리즈 <설국열차>가 '근대적'인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서사를 펼쳐나가는 반면,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판 <설국열차>는 사상적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TV 시리즈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엄세적인 인간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영화판 <설국열차>는 꼬리칸 사



TV 시리즈 <설국열차>의 최하층 계급을 대표하는 레이튼 형사(데이비드 디크스 분)와 최상층 계급을 대표하는 멜라니 카빌(제니퍼 코넬리 분).

람들의 평등을 위한 열망과 공동체 정신이 실은 열차 내 계급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조작된 방편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 서사 요소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욕과 불평등의 실존적-역사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감독의 생각을 반영한다.

소수의 개인은 죄악과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려 몸부림칠 수 있지만, 인류 전체로 바서는 비열하리만치 부당한 생존 투쟁과 그로 말미암는 적개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설국열차>는 열차 자체의 전복과 인류 멸절(두 명의 어린 생존자 외에는 모두 사망)이 아니고서는 그 원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영화의 괴멸적 결말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TV 시리즈보다 영화판 <설국열차>의 서사가 보다 적절하고 개연성 있는 인간 이해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기독교적 인류 이해 속에는 두 가지의 사회성 개념이 속해 있다.

하나는 신앙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의 관념적인 인간가치 규정에 근거한 세속적-통속적 사회성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계시를 믿는 신앙에 입각한 인간가치 규정에 근거한 기독교적-근원적 사회성이다.

### ◆인류와 사회: 진정한 평등사회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세속적-통속적 사회성 개념을 특징짓는 것은 당연히 자연상태의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인간관계라는 조건과 이를 극복하려는 계급투쟁, 그리고 인류의 손으로 직접 일궈내는 평등을 향한 변증법적 지양과 진보의 미래 등이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8-19세기 서구에서 사회학이 처음 등장하여 인류 사회와 역사에 대한 반성이 사회과학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서구에서 인류의 사회성 개념은 주로 기독교적 공동체 관점에서 사고되어 왔다. 물론 고대, 중세, 근대 초기까지는 사회학이라는 고도로 발전된 학문적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속 정치와 교회 사이의 관계 윤리, 그리고 교회 내 공동체 윤리를 통해 인류 본연의 사회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 이 전통적인 기독교적 사회성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부활시킨 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종교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포함되어 있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참여했다가 나치 독일에 의해 처형당한 행적으로 유명한 하지만, 신학적인 업적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본회퍼의 대표적 신학사상은 인간 인격의 선형적이고 근원적인 관계적 본질, 사회적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사고에 바탕을 둔 교회론이다.

그는 창조 시 인간에게 고등한 인격이 부여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맺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원죄에 의해, 인간의 죄성에 의해 훼손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고독을 택한다.

이 고독은 단지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결

여이고, 분노이고, 지배를 향한 집착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은 곧 인간 인격의 존재 근거의 상실과 결여이다.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걸려된 자신을 절감하는 인격은 스스로의 온전하지 못함에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분노를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농락함으로써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 부정적 충동들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이것들은 오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본회퍼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사회성 고찰의 요점이다.

본회퍼의 사회성 논의는 실제 교회의 사례들을 근거로 삼는 실증적인 논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공동체가 계급 투쟁의 굴레를 제대로 벗어난 사례들은 비록 한시적이긴 해도 교회사 전반에 걸쳐 목격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행 4:32-34)"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 있다.

간혹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원시 공산주의의 시초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내부의 계급적, 경제적 평등을 공산주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

초대교회의 평등은 내세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전제삼는 것이었던 데 반해, 공산주의적 평등은 철저히 유토피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세속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상실감, 분노, 집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 이 때문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온전한 평등사회를 내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전통과 정신은 자주 약화되고 후퇴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회는 항상 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온전한 신앙의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수많은 신앙 갱신 운동은 거의 여지없이 교회 내부적 권한과 경제의 평등 실현 노력을 수반했는데, 중세 초 수도원 운동과 루터-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사회성은 오로지 신앙에 근거해서만 정의, 화해, 돌봄, 나눔의 사회성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TV 시리즈 <설국열차>의 서사 진행방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치 '순수한' 계급 투쟁과 혁명이 타락해버린 사회성의 실태를 회복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순전한', 그러나 비현실적인 신뢰를 반영할 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종말 직전에 다가간 인류가 어떤 사회를 구축할지, 여전히 죄성과 욕망과 내부투쟁에 골몰하는 가운데 신음하며, 종말에 대한 불안을 떨치려 말초적 욕망과 자극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 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초대교회, 초기 수도원 운동,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입증했고, 본회퍼가 되살리고자 노력했던 신앙의 온전한 사회성 개념, 이 개념을 오늘날 교회들이 강력히 주장할 수 으려면 교회 내부의 이전투구 행태와 계급주의적 권위주의를 먼저 타파해야 할 것이다. 이 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깊은 인격적 관계로부터 나올 것이다.

신실한 신자들이 이루어진 교회들은 반드시 <설국열차>라는 알레고리 속에 투영되고 있는 투쟁적 사회성의 깊은 수렁을 벗어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신앙의 기준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TV 시리즈 <설국열차>의 기독교적 평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매직스레이트 \$1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d stylist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精製소금, 맛소금)	(정제염 - 精製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E.U.M Hemp Cafe**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Westmoreland  
Virgil  
Wilshire Blvd  
Wilshire Pl  
**E.U.M Hemp Cafe**  
이음헴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